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개념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노동의 영역에서 오랫동안 배제되어 온 최종증장애인이 참여하는 공공일자리이다. 이 일자리는 단순히 경제적 소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과 유엔 장애인 권리협약 실현을 목표로 한다.

2008년 국회에서 비준한 ‘유엔장애인권리협약(UNCRPD)’에 근거해 2014년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공론화해 교육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최종증장애인 당사자가 인권 담지자로서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이라는 세 가지 핵심 직무를 수행한다. 권익옹호 직무는 이동권, 교육권, 탈시설권 등 장애인 권리를 알리고 보장하기 위한 활동이며, 문화예술 직무는 창작 활동으로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표현한다. 인식개선 직무는 지역사회 장애 인식을 바꾸기 위한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다. 세 가지 직무를 통한 최종 목표는 UN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며, 협약 속 권리가 현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활동하는 것이다. 이는 장애인이 거주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며 노동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일로 이어진다.

기존의 시장 중심 효율성 일자리, 최종증장애인이 배제되던 실적 중심 장애인일자리와 달리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권리’를 생산한다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 “이것도 노동이다”를 구호로 지금까지 노동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한 최종증장애인 당사자를 노동의 주체로 활동하게 한다. 자신이 직접 노동의 주체가 되어 춤추고 노래하며 권리를 표현하고 확산시키는 활동은 장애인 권리를 가시화하고,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편견과 장벽을 허무는 강력한 도구로 작동하는 것이다.

즉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장애인을 보호나 시혜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에 전면으로 문제제기하는 공공 책임 모델로, 중증장애인이 노동자로서 지역사회에서 스스로의 삶을 설계하고, 나아가 더 많은 사람과 관계 맺으며 사회적변화의 가능성을 알리는 혁신적인 일자리이다.

전권협 선전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메인 리플렛]

: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의 활동을 소개하는 메인 리플렛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소개, 단체 소개,주요 활동소개, 직무소개 등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이하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지금까지 노동의 영역에서 배제되어 왔던 최중증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에 참여하는 중증장애인 노동자는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의 3대 직무를 수행하며 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고 모니터링하며, 협약 속의 권리가 현실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거주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노동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는 UN에서 선포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목표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실천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이 일자리에 참여하며 지역사회에서 직접 권리를 말하고, 권리에 맞춰 출구와 노래하며 권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노동
이다!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Association of Right-based Public Jobs for the Disabled

주 소 서울시 중로구 동송길 25, 511호 (유리빌딩)
전 화 02-747-0701
F A X 02-6008-5101
홈페이지 www.arpd.or.kr
후원계좌 국민은행 992401-00-010914
(예금주: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이 메 일 rights-oriented@sadd.or.kr
You Tube https://www.youtube.com/@rights-oriented

전국협 SNS QR코드

전국협 SNS를 팔로우하고 다양한 소식, 영상을 받아보시고 참여해주세요~

전국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협회

소개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이하 전권협)는 권리중심공공일자에 참여하는 최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이 3대 직무를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과 목적을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전권협은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의 권고를 기반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일반 대중을 상대로 교육하고 공론화하여, 장애인 권리협약의 권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국조직입니다.

전권협은 최중증장애인들이 이러한 활동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무를 개발하고 지원체계를 개발·강화하고자 하며, 최중증장애인 노동권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표로 합니다.

전권협은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을 지향하며, 노동의 영역에서 중증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중증장애인 노동자 및 수행기관을 조직하는 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정책·교육·사회운동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Disability Pride

Disability Pride는 중증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에서 살아감을 알리는 '장애인의 존엄한 행진'입니다.

전권협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한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며 지역사회를 행진합니다. 지역사회를 거닐며 장애인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권리와 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등을 선전하고 알려드립니다.

교육사업

전권협은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의 제도와 내실화를 목표로 다양한 교육사업을 주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기관과 담당자, 지원체계 (근로지원인 및 활동지원사 등) 그리고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사업을 합니다.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투쟁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전권협)는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오가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제도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안정적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지자체 투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을 대상으로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 활동, 특히 근로지원인 제도 확대 및 개선을 위한 투쟁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정책사업

전권협은 회원단체들과 함께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정책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에서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직무 매뉴얼 개발 등 제도화를 위한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노동의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해온 최저임금법 제7조(적용제외)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강사 교육직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장애인식개선전문교육과정을 통해 장애인식개선강사가 되어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권익옹호 직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장애인등권보장을 위한 권익옹호 활동으로 플랜카드를 직접 제작하여 행진하고 있다.

문화예술 직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동자가 장애인 UN CRPD 및 장애인권리를 주제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다.

[UNCRPD 권리엽서]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알리는 권리엽서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알림과 동시에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으로 활용되며, 정치인, 언론, 시민 등 다양한 사람들에게 권리중심공공일자리특별법제정의 의미를 알리고 중증장애인에게 일자리, 노동할 권리의 중요성을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글과 그림을 통해 알립니다. 한달에 한번 열리는 장애시민권리페스티벌에는 이 UNCRPD엽서를 활용한 엽서쓰기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전단지]

: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CRPD를 홍보하는 일자로, 캠페인 활동에서 시민분들에게 직접 배포하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소개하는 전단지입니다.



[내 손안의 권리 책자]

: 권리중심의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에서 알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핸드북으로 전단지보다 상세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캠페인 활동에서 시민분들에게 직접 배포합니다.



#1

중증장애인 노동의 현실

<중증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구분	장애인가구			국민
	전체	중증	경증	
경제활동참가율(%)	37.3	23.8	43.3	63.7
실업률(%)	7.1	8.2	6.8	4.0
고용률(%)	34.6	21.8	40.3	61.2

※출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21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2021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2021년 5월)」, 2021

- 2021년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257만명) 고용률은 34.6%로 전체인구(고용률 61.2%) 대비 현저히 저조함.
- 그중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3.8%로 중증장애인구 대부분이 '비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란?

취업지도 실업지도 아닌 사람.
곧 일할 수 있는 능력은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거나,
현재 일할 능력이 없어 노동공급에 기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

#10



2022년 대한민국 정부가 CRPD 부속문서인 '선택의정서'를 비준함에 따라,

정부가 CRPD를 지키지 않아 장애인의 권리가 침해된다면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에 직접 조사를 요청하거나 개인이 통보할 수 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정부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의정서는 CRPD의 이행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문화예술(1)

지역사회 장애인인식개선캠페인 '장애인이 행복한 원주'에서 중간 공연자로 초청받아 노동자들이 몸짓 공연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화예술(2)

자아실현창작활동 직무를 하며 그린 다양한 작품들로 창작예술 작품전시회를 개최하였다.



권익옹호

지역사회 내 노숙인요양시설 장애인 폭행 정황이 드러나, 장애인 당사자로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 개선을 위해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조경숙 노동자

저는 음악듣는거랑 댄스하는 것을 좋아해서 여기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방송댄스도 배우고 여러가지 다양하게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어 좋아요. 지금까지 다른 일도 해봤지만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사람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어 좋고 때론 이해하기 힘든 동료도 있어 힘들때도 있지만 대체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좋아요.

김수연 노동자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배우는 다양한 교육들도 좋고 집회 나가는 것도 좋아요.

이나은 노동자

몸이 불편해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다양하게 하는 교육들이 조금 벅찰때가 많아요. 근로지원인이 더 지원됐으면 좋겠어요. 휠체어를 타고 있어 나가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좋아서 집회도 좋고 다양한 외부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가끔 너무 큰 스피커 소리가 날 때는 조금 힘들때도 있어요.

나성민 노동자

권리중심공공일자리가 좋기도 하지만 3시간 근무여서 월급이 좀 적어서 좀 더 시간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진성관 노동자

집에 있기보다 사무실에 나와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하는 것이 재미있어요. 연극, 미술 교육도 재미있고 집회 나가는 것도 좋고 사무실에 동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우리 지역사회플로깅

의정부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협력기관들과 함께 환경정비가 가장 취약한 곳을 선정하여 플로깅활동을 진행함.

업사이클링워크숍&나눔행사

환경보호직무 및 생태환경활동을 통해 봄꽃비누를 활용한 비누를 만들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패트병, 건전지, 종이팩을 가져온분들에게 봄꽃비누를 나눠드리는 행사 진행함.



장애인권익보호활동

발달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참여를 위해 활동보조체계 변화를 촉구하는 권익보호활동 참여함.





문화예술활동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갈고 닦은 실력을 ‘전국 피플퍼스트대회’에 참여하여 ‘춤추는 자유, 자유로운 내 삶’을 주제로 발표함.

장애인인식개선활동

재활용품을 이용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 ‘리사이클링작품 전시회’ 개최 함. 지역주민에게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메시지 전달과 인식 전환의 개기를 마련함.



노동자 글

김준성 노동자

안녕하세요. 김준성입니다.

3월부터 장애인부모연대 의정부시지회에서 ‘내 일로 점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춤추고 재활용품으로 만들기하고 플로깅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피플퍼스트대회에서 음악에 맞춰 ‘춤추는 자유, 자유로운 내 삶’을 주제로 공연을 했습니다. 우리팀 ‘내 일로 점프!’를 소개하는 일을 제가 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소개하고 춤추는 시간이 즐거웠습니다.

장애인맞춤형일자리에 계속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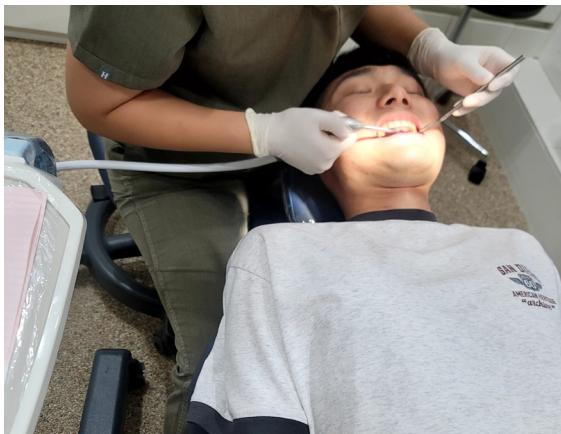
[경기지부]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담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의 권리를 알리고, 실현하는 센터입니다. ‘이것도 노동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 활동이 가진 사회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들이 능동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어 가고자 합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함께 하는 센터가 될 것입니다.

| 대표 직무 소개

장애인 주치의 모니터링



〈장애인 주치의 모니터링〉 직무는 장애인의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건강권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본 직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의 실제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정된 주치의 병원들을 대상으로 심층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합니다.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과 필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의료 서비스가 실제로 제공되고 있는지, 즉 진료 내용의 적절성, 상담의 질, 연계 서비스의 효율성 등을 다각적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의료기관 내 물리적인 장애인 접근시설(경사로, 화장실, 진료실 구조 등)의 적합성 여부와 의료진들의 장애 감수성 및 인식 수준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민원 제기 및 시정요구를 실시합니다. 이러한 실질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통해 의료 접근성 장벽을 해소하고 장애친화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애인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의료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마을 이야기 모임 진행

의사소통 직무에 기반하여 비장애인 마을 주민과 함께 월별 다양한 주제를 정해, 다양한 지역 모임, 주민 공동체 등을 초대 혹은 방문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장애인식개선 직무 진행.

9월 권리중심 노동자 지역간 교류 사업을 통해 권리중심 장애인 노동자의 연대와 교류증진, 소진방지를 위한 심 등의 프로그램 진행. (9월 3일 포천나눔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방문)



4.16 11주기를 맞이하여 진행된 '416기억문화제'에 장애인 인권 노래를 개사하여 노·가·바 노래 경연 대회에 참가.



노동자 글

이미진 노동자

마을이야기 모임을 와동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뜻깊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UN 장애인권리협약을 알리고 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이는 일자리입니다. 이번 마을 이야기 모임을 통해 권리중심공공일 자리를 소개할 수 있게 되어 기뻐했습니다.

와동 주민자치회 위원님들께서 모니터링 직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대화가 작은 실천으로 이어진 점이 참 의미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기획한 마을 캠페인, “와동 재생장터와 함께하는 우리 마을 한마당” 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와동 주민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임현수 노동자

안녕하세요. 저는 안산단원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 임현수라고 합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일한지 2년 차입니다. 처음엔 긴장도 많이 했고, 때로는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함께하는 동료들이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여러 동지분들과 만나고 캠페인도 하고 투쟁도 하면서 많은 힘과 연대를 느꼈습니다.

최근 탈시설 대회에 참여해서 다른 분들의 발언도 듣고, 아는 분들도 만나서 기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설에서 아직 지역사회로 나오지 못한 장애인분들도 빨리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투쟁해서 언젠가 탈시설협회장이 되고 싶습니다.



정성덕 노동자

안녕하세요 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 3년차 노동자 정성덕입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일하면서 체험함을 알게 되었고, 거기서 2년정도 살다가 지금은 자립해서 살고 있습니다. 시설에 있을 때는 밖에 못나가서 싫었습니다. 지금은 자유롭게 이동합니다. 시설에서 1년 일했는데 돈 조금 줘서 자립한다고 했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일하면서 소장님이 축구선수 할 수 있게 해줘서 홈리스월드 컵에 국가대표로 나갔습니다. 동료들이랑 투쟁하면서 가게에 경사로가 생기고 버스 정류장 이름이 똑같아서 바뀌달라고 해서 이름도 바꿨습니다.
 권리중심공공일자리는 저의 꿈입니다. 돈도 벌고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며, 언젠가는 저의 집을 사고 싶습니다. 보치아 선수도 되고 싶고 제주도, 홍콩, 미국도 자유롭게 다니고 싶습니다. 건강하고 힘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옥혜경 노동자

저는 예전에는 잘 실력이 없었습니다(노래실력)
 전의부터 지금까지는 실력이 늘었습니다
 그냥 아니예요 실용음악학원을 통해서
 그때 그룹으로도 좋고 솔로로도 좋다고 생각해요
 가사 바꿀때 쉬울때 있고 힘들때 있어요
 우리는 아파트만 아니고요 무조건, 권리열차로
 바짝요 왜냐면 우리의 권리를 알아야 하니까
 까요?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민주주의 투쟁!



노동자 글

최준철 노동자

안녕하세요?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최준철입니다.

저는 여주시에서 가장 오지인 산북면에서 중장비 사업을 하다가 97년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는 사고로 경추골절로 경추신경을 다쳐 의식 없이 중환자실에서 4개월여 만에 깨어났지만 한동안 정신은 온전하지 못했고, 정신이 또렷해 지고 난 후 팔 다리 등 온몸이 내 마음대로 전혀 움직이지 않고 아무리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목소리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담당 의사선생님한테 전신마비 장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하늘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사고 당시 갓 100일이 지난 막내는 벌써 29살 청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지만 아내의 노력과 희생으로 모두 자리를 잡아 열심히 생활하는 아이들은 어느덧 나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대견하고 고맙습니다.

제가 여주시내로 혼자 자립을 하기 전 집에서 일상생활은 거의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오늘 하루는 무슨 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시간을 보낼까? 하며 의미 없이 보내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이런 생활을 반복하던 중 2022년도에 여주시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에서 저에게 자립을 권유해 주셨고,

여주로 이사를 나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립을 하면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에서 일을 하며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일들이 생겼고,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취직을 해서 봉급을 받을 수 있을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첫 봉급을 받았을 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을 못할 정도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자립을 해서 너무나 행복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28년만에 세상밖으로 나와 새로 태어난 것 같았습니다.

권리중심중증장애인 일자리에서 저상버스를 타고 여주시내를 돌아보기도 하고, 여러곳을 다니며 편의시설 점검도 하고, 지하철을 타고 서울도 가보고 그동안 해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한 날들이었습니다. 제가 집에만 있었다면 이런 행복은 모르고 살았을 것입니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에 출근하면서 내 삶은 180도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나이 60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저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감사하고 귀한 일자리입니다.

일할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권익옹호

권리중심 노동자들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포천시민 대상 서명운동을 하고 있다. 노동자가 만든 구호와 피켓으로 시민에게 우리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 중 하나이다.

문화예술

2025년 제6회 포천인권문화제에서 노동자들이 권리중심공공일자리 확보를 위해 개사한 곡에 맞춰 창작한 안무를 하며 문화예술공연을 하여 시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다.



인식개선

권리중심 노동자들이 포천시 관인면사무소의 행정게시대에 UN장애인권리협약 홍보 책자를 비치하여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볼 수 있도록 안내 하고 있다.



문화예술

- 찾아가는 트로트 합창단
- 유해식물정화, 플로깅 등 환경생태활동
- 지역사회에 직무 중 제작한 홍보물 나눔활동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

주변의 취약계층을 방문하여 흥겨운 음악을 전달하는 ‘찾아가는 트로트 합창단’과 같이 지역 밀착형 활동을 지향하고 있음. 또한 환경생태활동으로 사회공헌을 실천함으로써 능동적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함.

직무 과정에서 제작한 홍보물을 직접 전달하는 등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통합적인 공동체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장애인 차별금지를 주제로 한 미술활동을 하는 모습과 그 결과물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맞아, 발달장애인 권익 옹호 활동을 마친 뒤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월 1회, 지역사회의 노인복지기관을 찾아다니며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공연을 하고 있는 “찾아가는 합창단”



노동자 글

“찾아가는 트로트 합창단” 단장 박서연 님 인터뷰

1.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하는 일 중에서 가장 즐거운 일은 무엇인가요?

저는 합창시간에 노래 연습해서 찾아가는 합창단 공연할 때가 제일 즐거워요.

2. 박서연 씨는 주말에 합창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합창 동아리와 “찾아가는 트로트 합창단”이 느낌이 다른가요?

네. 합창 동아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노래할 수 있어서 좋고, 찾아가는 합창단은 어르신들이 반갑게 인사해주고 어르신들과 어울려서 춤추고 노래하는 것이 좋아요.

3. 찾아가는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았을 때는 언제인가요?

공연을 할 때마다 항상 좋았어요. 그런데 9월 공연을 갔는데 거기에 우리 증조할머니가 있어서 더 좋았어요. 어르신들이 즐거워하고 예뻐해주셔서 좋아요. 그리고 합창 선생님이 알려주신 무대 동작을 할 때 어르신들이 박수쳐주시면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아요.

4. 찾아가는 합창단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있나요? 있다면 무엇인가요?

공연을 나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다같이 가지 못해서 아쉬워요. 그리고 공연할 때 어르신들이 신나게 박수를 안 쳐주시면 제 마음이 속상해요. 신나게 공연하면 좋겠어요.

5. 찾아가는 합창단을 통해서 사람들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나요?

네. 공연 갔을 때 거기 계신 선생님들이 우리 팀장님한테 생각보다 너무 잘한다고 칭찬해주는 걸 들었어요. 발달장애인이라서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면 속상해요. 그래도 공연하고 나서 좋게 생각해주셔서 다행이에요.

6. 앞으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에 바라는 점이 있나요? (활동 제안, 바라는 점 등 자유롭게 써주세요)

저는 권리중심공공일자리에서 하는 합창, 악기, 미술이 너무 좋아요. 제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일하는게 즐거워요. 저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습니다.



김민영 노동자

소감

합창 노래 부르는 재미있었어요
조금씩 일하고 월급도 받아서 부딪칩니다
제가 할수있는 일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이웃들한테 선물 나눠줄때 기분이 좋아요
이웃들이 웃어 주면 내 편들어주려는 것 같아요
권리 중심이지 꼭 지켜주세요

김종호 노동자

전에 다니던 직장에 비해서 권리중심 일자리가 더 재미있고
월급도 적절합니다 권리중심 일자리 시간을 더 길게 하면
좋겠고 타라는 점은 앞으로도 계속 권리중심 일자리를 하면 좋겠습
니다 이런 일자리가 더 많이 생기면 좋겠고 권리중심 일자리를 더
많이 늘리면 좋겠습니다 경기도 뿐만 아니라 충북 전국에도 생기면 좋겠습니
다 전에 다니던 직장 근무에 비하면 이런일이 적절합니다 미늘 시간에
점도 만등기도 하면 좋겠고 약기 시간에 실로폰도 하면 좋겠습니다
합창 시간에 노래자랑을 곡씩 하면 좋겠습니다 캠페인도 자주하면 좋겠
습니다



주엽공원 UN CRPD 홍보 캠페인

지구시민운동 내고장 환경 지킴이
EM흙공던지기-지역 하천 정화 운동

문화예술 활동

- **패럴영화촬영(햇빛원정대)**

장애인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영화 제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콘텐츠 제작 전문가의 교육을 통해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과 일에 대한 이야기를 영상으로 촬영, 편집하여 대한민국 패럴스마트폰영화제에 출품합니다. 또한 영화 교실을 통해 촬영 기법과 제작 과정을 배우며, 모든 제작 단계에 직접 참여하는 단편 영화(Shorts)를 완성합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참여자는 자기표현 능력을 키우고,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히며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 **문화예술협업프로젝트**

장애인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지역사회와의 상호작용을 증진하며, 나아가 일자리와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예술을 목표로 한 춤과 미술전문 강사와 함께 지역 전시회와 문화체험부스에 작품을 선보입니다. 또한 장애인의 자기표현과 성장, 권익옹호를 위해 피켓 제작과 홍보물을 제작하고, 권리중심 노동현장을 기록한 사진전을 개최하여 1년간의 활동을 지역사회와 공유하며, 장애인식 개선과 권리주장의 메시지를 널리 알립니다.



2025 '대한민국패럴스마트폰영화제(KPSFF)'
출품 영화 촬영



고양어울림누리미술관에서 열린
2025 장애예술인 작품전시회 참여

노동자 글

봉민정 / 이현욱 노동자

봉민정 권리중심 하면서 제가 미술 프로그램을 해서
행복했어요
이현욱
돈 배워서 좋았다
내년 해 하고 싶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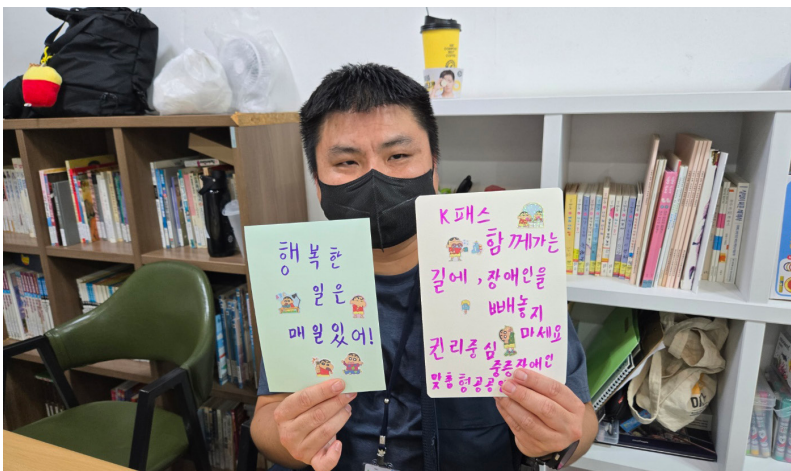
권익옹호

은행에 장애인화장실, 주차구역 등 편의시설을 직접 보고 체크리스트에 작성해보면서 불편한 점이나 잘된 점을 알아보는 편의시설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소감도 나누어보는 활동



인식개선

행정복지센터에서 매월 1회 권리중심공공일자리, UNCRPD에 관련된 내용을 퀴즈형식으로 준비하여 시민분들과 함께 풀어보고 홍보물품도 배부하는 활동



문화예술

캘리그래피로 본인의 생각을 담은 권리활동으로 권리 메시지를 직접 써보고 서로 공유하는 활동



권리중심 노동자들이 밀양 관아 앞에서 ‘함께하는 사회, 함께하는 투표, 우리도 자유롭게 투표하고 싶어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피켓을 들고 장애인 유권자의 투표권 보장을 촉구하는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사물놀이 활동을 통해 노동자들은 전통의 리듬과 소리로 자신의 삶, 감정,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바로잡기 위해, 인식개선활동 직무에서는 스마트폰을 통해 온라인상 혐오 표현과 비하 발언을 모니터링하는 활동을 진행 중이다.

[경남지부]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

양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동료성을 기반으로 자신의 삶을 주도하여 사회참여를 지향하고, 당사자 원칙과 지역사회에서 삶을 살아야 하는 자립생활 이념과 철학을 바탕으로 현재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경험하는 사회적 차별과 배제에 대응하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권한 강화를 통하여 자립생활에 맞는 지역사회 자립생활 환경 및 제도개선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다. 이러한 자립생활 운동을 통하여 중증장애인도 교육받고 이동하고 노동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구축하고자 한다.

| 대표 직무 소개

권익옹호	지역사회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바탕으로 편의시설 모니터링, 지자체 분야별 정책 살펴보기 등 권익옹호 활동을 함.
문화예술	일상생활에서 직접 경험한 차별상황을 연극으로 구성하여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함.
인식개선	지역사회 시민홍보전, 장애아동의 날, 경남 매드프라이드에 참여하여 “추억의 뽀끼로 알아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같이 읽어보기”, “CRPD의 내용 알리기” 활동을 통해 애인권리협약 홍보 및 인식개선 활동을 함.



지역사회주민 대상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활동을 함.



문화예술활동을 통해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활동자료를 제작함.



연극을 통해 장애인차별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인식개선헌활동을 함.

노동자 글

정영훈 노동자

공공일자리 하면서 좋았던점은 모르던 사람들을 알게되어서 좋았습니다.

오철수 노동자

돈 버는 일을 해서 좋아요. 혼자서 일 할 수 있어요.



노동자 글

이점조 노동자

구청을 통해 진해장애인인권센터에 일자리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처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낯설기도 했지만, 여러 가지 업무를 하면서 점점 즐거움을 느끼고 시간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집에서 혼자 지내며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진해장애인인권센터에서 활동하면서 '이런 행복이 나에게도 오는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외롭지 않습니다. 진해장애인인권센터에 오면 즐겁고, 제 마음을 이해해 주고 함께해주는 동료들이 있어 든든합니다.

무엇보다 이곳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또 즐겁게 일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인권센터 파이팅!

신대길 노동자

권리중심형 일자리를 하면서 우선 첫 번째로 좋은 게 예전에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받아 생활했는데 권리중심 일을 나서부터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 스스로 벌어서 생활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맛있는 것도 사 먹을 수 있고, 좋아하는 옷도 마음대로 사 입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직접 경제 활동을 해서 최고로 좋습니다.

방노아 노동자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어 즐겁습니다. 예전에 거주시설 작업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었는데, 하루 종일 8시간을 일해도 손이 느려 한 달 월급이 고작 5만원 이었는데 권리중심 노동을 하면서 한 달 60시간 근무하고, 최저임금도 보장받습니다.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인식개선활동을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만들어 가는 일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우쿨렐레 연주도 배우고, 캘리그래피도 배우며, 일하면서 배우고 돈을 벌 수 있어 즐겁고 행복합니다.